

직업능력개발

I. 직업능력개발 정책

□ 고용노동부, 고졸 취업자를 위한 ‘일-학습 병행 교육훈련’ 시범사업 실시

○ 사업 목적: 고졸 취업자들이 소속 사업주가 주도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

○ 사업 개요

- 2012년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시범사업으로 실시

-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사업주단체(한국디지털에이전시산업협회)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고졸 재직자를 위한 현장실무형 계약학과 2개(디지털융합공학과, 디지털디자인학과)를 운영

- 훈련생은 협회 소속 IT 기업들의 고졸 재직자

- 고용노동부는 재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 근로자는 입학금의 50%만 부담하고 회사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일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 기업은 4년 후 졸업생에 대해 대졸 신규채용자보다 임금 등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제공할 것을 사전에 약정

○ 교육과정의 특징

- 기업 주도로 교육과정 개발

- 전체 학점의 30~40%인 이론교육은 한국산업기술대학에서 주중 야간, 주말에 교실수업으로 진행

- 졸업학점의 50% 이상인 프로젝트 형식의 실습교육은 재직 회사의 OJT로 실시

□ 고용노동부, 2012년 9월부터 고졸 군 전역병을 위한 훈련 과정 실시

- 열린고용 확산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고졸 군 전역자 등 청년층 대상으로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전문훈련시설을 활용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시
- 훈련 개요
 - 훈련 대상: 고졸 군 전역 예정자(전역자) 등 7백여 명
 - 지원 내용: 훈련비 전액(훈련기관에 지급), 훈련 장려금 월 최대 31만 6천 원(훈련생에 지급)
 - 훈련 과정: 13개 훈련기관의 23개 훈련 과정(4~6개월)

□ 고용노동부, 포스코와 공동으로 「비정규직 고숙련화 직업훈련」 실시

- 목적: 대기업의 우수 훈련인프라를 활용,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숙련화하여 고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고숙련 기술인력 부족을 해소
- 훈련 개요
 - 훈련 주관: 포스코
 - 훈련 기간 및 장소: 8월 13일부터 1개월(150시간), 포스코 미래창조아카데미에서 실시
 - 훈련 대상: (주)피티엠과 (주)피앤피 등 2개 중소기업의 계약직 근로자 12명
 - 훈련 참여 계약직 근로자는 전일제(8시간) 훈련을 받으며, 이수 후 60점 이상의 성적이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됨.
- 훈련 지원 사항
 - 포스코: 훈련 시설·장비 등의 제공과 훈련 운영을 담당
 - 고용노동부: 훈련비와 훈련 기간 중 해당 기업이 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주)피티엠 등은 훈련 시작 전에 포스코와 훈련 이수자 중 소정의 평가를 통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협약을 체결

□ 고용노동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특화훈련 과정 실시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훈련 외에 남한사회 정착 및 직장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도 추가 실시하는 맞춤형 훈련
 - 기초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컴퓨터 활용능력, 표준어 발음 및 억양, 외국어 활용법, 남한사회 이해, 직장생활 노하우 등
- 북한이탈주민의 선호도, 고용가능성을 고려하여 4개 훈련 직종에서 100명에게 훈련을 제공할 계획
 - 훈련 직종은 특수용접(건설기술교육원, 20명), 건설기계정비(불보건설기계교육센터, 30), 프로그램테스터(삼성SDS, 25명), 한복제작(한국한복공업협동조합, 25명) 등이며, 훈련 기간은 6~7개월임.
-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전액과 훈련 장려금 월 최대 31만 6천 원을 지급하고, 통일부에서 훈련 수료 후에 직업훈련 장려금 200만 원을 훈련생에게 지급

□ 고용노동부, 2012년 8월부터 구직자의 인터넷원격훈련(이러닝) 수강료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이러닝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훈련상담을 거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실업자(매출액 8천만 원 미만 영세자영업자 포함)
 - 지원 내용: 지원 한도(200만 원) 범위 내 수강료의 55~100%, 인터넷원격훈련의 특성상 훈련 장려금은 미지급
 - 지원 요건: 해당 과정 훈련비의 80%는 진도율에 따라 지급, 20%는 평가점

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지급

○ 훈련 과정

-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와 한국이러닝산업협회가 제공
- 경영, 회계, 정보통신 등 이러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분야 위주로 실시
- 8월에는 46개 훈련 과정 제공, 연말까지 100여 개 과정으로 확대될 계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대학생 커리어 캠프 실시(2012.7.19~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립특수교육원이 연계하여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번 캠프는 1박 2일간의 합숙 과정으로 진행
 - 참여자: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졸업예정 장애학생 27명
- 캠프 기간 동안 취업 준비 중인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직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 교육과목: 이력서 작성법, 효과적인 이미지메이킹, 모의 면접, 대인 관계 향상, 올바른 직장 예절 등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부처에 취업 중인 장애인 선배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취업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

□ **기획재정부, 무역 관련 대기업 은퇴임원 등을 ‘FTA 활용 전문 컨설턴트’로 양성**

- 추진 배경
 - FTA가 일자리창출 등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FTA를 활용한 교역 확대 및 기업의 수익창출 증대 등 실현 필요
 -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FTA를 활용한 마케팅 및 비즈니스 전략 수립 역량이 부족하여 단기적 FTA 특혜관세에만 관심

- 이에, 무역을 이해하고 체험한 베이비붐 세대 퇴직인력 등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 비즈니스 전략 지원 필요

○ 사업 내용

- 2012년 8월 27일 1차 개강, 2013년까지 5회에 걸쳐 200명을 양성할 계획
- 교육 프로그램: FTA 활용 종합분석이 가능하도록 원산지 이외 시장개척, 마케팅, 통관, 생산, 물류 등 무역 순 단계(15개)를 이해하고 FTA 활용에 의한 수익창출 교육 위주로 구성.
- 교육신청자격: 무역 분야 퇴직자(무역 실무경험 10년 이상), 무역 분야 강의 경력자(10년 이상), 수출산업 분야 공무원 퇴직자(실무경력 15년 이상), 전문직 무역 관련 유경험자(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등) 등
- 교육 시간 및 교육비: 교육 시간은 총 120시간으로 7주 동안(매일 6시간, 매주 3일) 실시, 교육비는 정부가 90% 지원, 교육생이 10% 부담
- 양성된 컨설턴트는 FTA컨설팅에 투입하여 현장경험을 쌓은 후 FTA 활용 지원센터 등의 상담·자문단, 기업 전문인력 및 강사 등으로 육성

□ 고용노동부, 2012년 대한민국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과 모범사업체 선정(2012.8.28)

-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 발전과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에 공헌한 대한민국 명장(27명), 우수 숙련기술자(49명), 숙련기술 전수자(4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1곳) 등 선정

○ 대한민국 명장 등 선정제도 개요

구분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지원 내용
	구분자격요건	선정기준	
대한민국 명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산업현장 동일 분야(고시 직종)에서 15년 이상 직접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능경기대회 입상 및 자격취득 실적 ○ 업무개선, 서적 및 논문, 매뉴얼 개발 실적 ○ 대외 활동 실적 ○ 사회봉사 활동 실적 ○ 면접 등 종합평가	○ 일시장려금 2,000만 원 ○ 매년 계속종사장려금(143만~333만 원) ○ 명장 증서 및 휘장 수여 ○ 명패 제작 수여 ○ 국외산업시찰
우수 숙련 기술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대한민국명장 선정직종 중에서 숙련 기술장려 사업의 취지 및 산업동향을 고려하여 선정 ※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하여 선정(중기 우대가능)	○ 기능경기대회 입상 및 자격취득 실적 ○ 업무개선, 서적 및 논문, 매뉴얼 개발 실적 등 ○ 면접 등 종합평가	○ 일시장려금 200만 원 ○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수여
숙련 기술 장려 모범 사업체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중에서 선정 1.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2.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3.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등 ※ 소기업, 중소기업과 그 외의 대기업 구분 선정 가능	○ 숙련기술인 우대제도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배출실적 등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명판 수여 ○ 정기근로감독 면제(3년)
숙련 기술 전수자	다음 종목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 1. 제조업의 기반 분야(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2. 산업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3. 세대 간에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	○ 전수자 및 전수대상자 평가(숙련기술 보유 정도) ○ 전수환경의 적정성 및 전수교육계획의 타당성 ○ 기술전수의 필요성 ○ 전수대상자의 전수여건 ○ 면접 등 종합평가	○ 숙련기술전수지원금(5년) - 전수자: 월 80만 원, 전수대상자: 월 20만 원 ○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수여

□ 고용노동부, 「9월 직업능력의 달」 행사 개최

○ ‘꿈UP! 희망UP! 함께하는 직업능력의 달’이라는 슬로건 아래 직업능력과 기술·기능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즐기며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 진행

○ 직업능력의 달 행사 개요

구분	일자 및 장소	주요 내용	주관기관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9.3(월) 11:00 서울가든호텔	• 사회 각 분야에서 직업능력개발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 및 명장 등 우수 기능인 인증	한국산업인력공단
제47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9.4(화)~9.10(월) 대구광역시	• 우수 기능인력의 기능 경진 및 시상 등을 통해 대국민 기능습득 및 기능향상 장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민국 장인 작품 박람회	9.13(목)~9.16(일) 양재AT센터	• 우수 숙련기술인 작품전시회 및 부대행사를 통해 숙련기술 우대 풍토 확산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 인증수여식	9.18(화) 11:00 서울가든호텔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을 통해 기업의 HRD 인증제 참여 유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제6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9.24(월)~9.25(화) 코엑스	• 기업 등 HRD 관계자에게 국내외 HRD 최신 동향 및 선진기법,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교류의 장 마련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성과 경진대회	9.24(월) 10:00 코엑스	• 중소기업 학습 조직화 우수사례 발굴·시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수 교육훈련 프로그램 경진대회	9.24(월) 10:00 코엑스	•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발굴·시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체계적 현장훈련 우수사례 발표회	9.25(화) 10:00 코엑스	•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시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 세미나	9.24(월) 10:00 코엑스	• 직무능력표준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의 현장·통용·연계성 제고에 대한 이슈 진단과 대안 모색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 세미나	9.25(화) 13:30 코엑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관련 이슈 진단 및 대안 모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업주훈련 강연	9.24(월) 코엑스	• 사업주훈련에 대한 발전 방향 토론 및 기업 HRD 관련 강연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

II. 직업능력개발 통계

◆ 지역별 고용조사(2011년 4사분기) 결과

〈만 15세 이상 전체〉

- 2011년 15세 이상 인구의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27.5%로 전년 대비 2.3%p 증가함.
 - 인적 속성별로 증감률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2.7%p), 연령별로는 15~29세(5.2%p),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3.6%p)가 다른 집단보다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함.
 -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가 33.7%로 전년 대비 2.0%p 증가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8.7%로 2.7%p 증가한 반면, 실업자는 21.6%로 0.1%p 감소함.
- 교육훈련 참여자의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은 ‘직장연수, 기관(단체) 주관 직업훈련’(66.7%)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자기주도학습(14.1%), 학원수강(13.3%), 교양강좌(5.6%)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의 경우 직장연수 등이 8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실업자는 직장연수 등(40.1%) 외에 자기주도학습(27.0%)과 학원수강(27.4%)의 비중이 높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학원수강(41.0%)과 자기주도학습(35.5%)의 비중이 높음.

표 1. 15세 이상 인구의 인적 속성별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 및 주된 방법(1순위)

(단위: %, %p, 전년 대비)

		2010년	2011년						
		교육 참여 비중 (A)	비중 (B)	증감 (B-A)	교육 참여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 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기타
전체		25.2	27.5	2.3	66.7	14.1	13.3	5.6	0.4
성	남자	29.4	32.1	2.7	73.9	12.8	11.3	1.8	0.3
	여자	21.2	23.1	1.9	57.1	15.9	16.0	10.5	0.6
연령	15~29세	35.7	40.9	5.2	34.0	30.2	33.9	1.3	0.6
	30대	30.5	32.4	1.9	83.0	8.2	4.0	4.6	0.3
	40대	27.8	29.3	1.5	86.1	5.7	2.1	5.9	0.3
	50대	20.8	22.8	2.0	87.3	3.4	1.3	7.6	0.3
	60세 이상	8.0	9.3	1.3	71.1	2.3	1.1	25.1	0.4
학력	중졸 이하	17.2	20.8	3.6	33.0	25.6	34.6	5.9	0.9
	고졸	21.8	23.0	1.2	69.3	13.0	10.5	6.9	0.3
	전문대졸	32.2	34.2	2.0	82.7	7.4	4.9	4.8	0.3
	대졸 이상	39.6	41.3	1.7	81.1	9.8	4.5	4.3	0.2
경제 활동 상태	취업자	31.7	33.7	2.0	89.2	5.8	2.5	2.3	0.2
	실업자	21.7	21.6	-0.1	40.1	27.0	27.4	5.0	0.5
	비경활	16.0	18.7	2.7	8.5	35.5	41.0	14.1	1.0

주: 1) 주된 교육훈련 방법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수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해당 방법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년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지역별로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이 45.6%로 가장 높고, 인천이 20.9%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대전이 20.1%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인천은 -8.6%p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2. 15세 이상 인구의 지역별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 및 주된 방법(1순위)

(단위: %, %p, 전년 대비)

		2010년	2011년							
		교육 참여 비중 (A)	교육 참여							
			비중 (B)	증감 (B-A)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기타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 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전체		25.2	27.5	2.3	66.7	14.1	13.3	5.6	0.4	
지역	서울	18.4	21.2	2.8	54.8	21.2	17.4	6.4	0.2	
	부산	27.2	31.3	4.2	66.7	13.8	14.1	4.8	0.5	
	대구	32.0	31.6	-0.4	63.7	10.5	17.4	6.4	1.9	
	인천	29.5	20.9	-8.6	56.2	16.9	18.9	7.4	0.6	
	광주	13.1	26.4	13.2	57.5	19.6	18.8	3.7	0.4	
	대전	20.6	40.7	20.1	69.9	14.3	11.2	4.3	0.4	
	울산	46.7	45.6	-1.1	74.9	9.5	9.5	6.1	0.1	
	경기	27.2	27.4	0.2	65.4	14.5	13.5	6.4	0.2	
	강원	23.0	25.3	2.3	77.9	9.3	6.3	6.1	0.5	
	충북	30.2	32.8	2.6	76.7	8.3	11.0	4.0	0.1	
	충남	30.4	34.4	4.0	76.7	10.4	8.9	3.5	0.5	
	전북	25.2	29.9	4.8	74.8	10.2	11.2	3.7	0.0	
	전남	19.5	25.9	6.4	73.6	14.2	7.9	4.2	0.2	
	경북	30.8	30.1	-0.7	76.8	8.3	8.8	5.8	0.2	
	경남	20.2	24.6	4.4	69.8	12.7	12.2	4.7	0.6	
	제주	41.8	37.8	-4.1	71.5	14.6	9.4	3.9	0.6	

주: 1) 주된 교육훈련 방법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수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해당 방법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년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2011년 15세 이상 인구의 연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19.1%로 전년 대비 1.3%p 증가함.

-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가 30.6%로 전년 대비 2.5%p 증가한 반면, 실업

자는 13.9%로 1.3%p 감소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2.4%로 0.7%p 감소함.

표 3. 15세 이상 인구의 인적 속성별 연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

(단위: %, %p, 전년 대비)

		2010년	2011년	
				증감
전체		17.8	19.1	1.3
성	남자	22.0	24.2	2.1
	여자	13.8	14.2	0.4
연령	15~29세	15.8	15.5	-0.3
	30대	25.7	28.1	2.4
	40대	24.0	25.7	1.7
	50대	17.6	20.0	2.3
	60세 이상	5.6	6.6	1.0
학력	중졸 이하	6.5	6.8	0.3
	고졸	16.1	16.5	0.4
	전문대졸	27.3	29.8	2.5
	대졸 이상	32.9	35.3	2.4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8.0	30.6	2.5
	실업자	15.1	13.9	-1.3
	비경활	3.1	2.4	-0.7

자료: 통계청(각년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지역별로 연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이 35.0%로 가장 높고, 서울이 12.5%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대전은 13.0%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인천이 -8.9%p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4. 15세 이상 인구의 지역별 연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

(단위: %, %p, 전년 대비)

		2010년	2011년	
			증감	
전체		17.8	19.1	1.3
지역	서울	12.0	12.5	0.5
	부산	19.0	22.1	3.1
	대구	21.1	21.0	-0.1
	인천	22.0	13.1	-8.9
	광주	10.3	15.3	4.9
	대전	15.8	28.8	13.0
	울산	36.6	35.0	-1.6
	경기	19.1	18.8	-0.2
	강원	17.8	20.3	2.5
	충북	24.0	25.7	1.7
	충남	25.0	27.0	2.0
	전북	10.6	22.6	12.0
	전남	13.9	18.9	5.0
	경북	23.7	22.8	-0.9
	경남	13.6	17.7	4.1
	제주	32.6	28.7	-3.9

자료: 통계청(각년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

□ 2011년 취업자의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33.7%로 전년 대비 2.0%p 증가함.

- 인적 속성별로 교육훈련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35.5%), 연령별로는 30대(40.2%),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48.6%)이 다른 집단보다 높음.
-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47.1%로 가장 높고, 임시근로자(26.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0.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0.7%) 순으로 나타남.

- 교육훈련 참여자의 주된 교육훈련 방법으로는 ‘직장연수, 기관(단체) 주관 직업훈련’이 89.2%를 차지함.
- 일용근로자는 자기주도학습(15.1%)과 학원수강(15.3%)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무급가족종사자는 교양강좌(12.8%)의 비중이 높음.

표 5. 취업자의 인적 속성별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 및 주된 방법(1순위)

(단위: %, %p, 전년 대비)

		2010년	2011년						
		교육 참여 비중 (A)	비중 (B)	증감 (B-A)	교육 참여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기타
전체		31.7	33.7	2.0	89.2	5.8	2.5	2.3	0.2
성	남자	33.1	35.5	2.4	91.9	5.1	1.6	1.2	0.1
	여자	29.7	31.1	1.4	84.7	6.8	4.0	4.2	0.2
연령	15~29세	37.7	39.5	1.8	80.8	10.1	7.5	1.5	0.1
	30대	37.5	40.2	2.7	89.6	6.4	2.3	1.6	0.2
	40대	32.8	34.4	1.6	91.0	5.1	1.3	2.5	0.2
	50대	26.4	28.9	2.5	92.8	3.0	0.7	3.3	0.2
	60세 이상	16.5	19.0	2.5	93.1	1.5	0.4	4.7	0.3
학력	중졸 이하	16.7	18.7	2.0	92.1	2.1	2.0	3.5	0.3
	고졸	26.5	27.7	1.3	88.8	4.9	3.1	2.9	0.2
	전문대졸	38.1	40.4	2.3	89.6	5.4	2.6	2.3	0.2
	대졸 이상	46.6	48.6	2.1	88.6	7.5	2.3	1.6	0.1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5.0	47.1	2.1	92.1	4.8	1.7	1.2	0.1
	임시근로자	26.3	27.5	1.2	81.8	8.5	5.3	4.2	0.2
	일용근로자	11.3	11.4	0.1	62.9	15.1	15.3	6.0	0.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0.9	22.4	1.6	86.9	7.6	2.1	3.3	0.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8.4	20.7	2.3	87.7	5.4	2.2	4.4	0.3
	무급가족 종사자	8.6	10.2	1.6	74.6	8.6	3.3	12.8	0.8

주: 1) 주된 교육훈련 방법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수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해당 방법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년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지역별로 취업자의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이 59.0%로 가장 높고, 인천이 22.4%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대전이 22.1%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인천은 -13.7%p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6. 취업자의 지역별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 및 주된 방법(1순위)

(단위: %, %p, 전년 대비)

	2010년	2011년							
		교육 참여 비중 (A)	비중 (B)	증감 (B-A)	교육 참여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 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기타
전체	31.7	33.7	2.0	89.2	5.8	2.5	2.3	0.2	
지역	서울	21.9	23.1	1.2	81.7	10.1	5.3	2.8	0.1
	부산	33.9	39.3	5.4	91.1	4.3	2.9	1.3	0.4
	대구	36.3	36.3	0.0	90.2	4.3	2.9	2.2	0.4
	인천	36.1	22.4	-13.7	81.9	10.1	4.2	3.8	0.0
	광주	18.4	29.9	11.5	86.3	8.1	3.0	2.3	0.3
	대전	29.3	51.3	22.1	91.9	4.9	2.0	1.2	0.1
	울산	59.7	59.0	-0.7	94.8	2.5	0.9	1.7	0.0
	경기	33.9	33.4	-0.6	87.7	6.3	2.9	2.9	0.1
	강원	32.9	37.1	4.2	92.6	4.4	0.7	2.0	0.3
	충북	41.5	45.9	4.5	94.5	2.8	0.8	1.9	0.1
	충남	42.4	46.4	4.0	94.1	3.3	1.0	1.3	0.4
	전북	33.2	40.7	7.5	93.5	3.5	1.1	1.7	0.1
	전남	25.0	32.9	7.9	92.1	5.2	0.4	2.2	0.1
	경북	39.8	39.8	0.0	93.7	3.0	0.9	2.4	0.0
	경남	24.1	30.9	6.8	90.7	4.9	1.7	2.4	0.3
	제주	48.1	43.2	-4.9	88.9	6.8	2.0	2.2	0.1

주: 1) 주된 교육훈련 방법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수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해당 방법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년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2011년 취업자의 연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30.6%로 전년 대비 2.5%p 증가함.

- 인적 속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32.8%), 연령별로는 30대(37.0%),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44.2%)이 다른 집단보다 높음.
-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43.7%로 가장 높고, 임시근로자(23.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0.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8.6%)의 순으로 나타남.

표 7. 취업자의 인적 속성별 연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

(단위: %, %p, 전년 대비)

		2010년	2011년	
				증감
전체		28.0	30.6	2.5
성	남자	29.6	32.8	3.2
	여자	25.8	27.4	1.6
연령	15~29세	31.5	33.3	1.8
	30대	33.3	37.0	3.7
	40대	29.6	31.7	2.1
	50대	23.9	26.7	2.9
	60세 이상	14.6	17.5	2.9
학력	중졸 이하	14.9	17.0	2.1
	고졸	23.5	24.9	1.4
	전문대졸	33.8	37.2	3.4
	대졸 이상	40.9	44.2	3.4
경제활동상태	상용근로자	40.4	43.7	3.2
	임시근로자	22.4	23.7	1.3
	일용근로자	8.5	7.6	-0.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8.6	20.2	1.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6.0	18.6	2.7
	무급가족 종사자	6.6	7.9	1.3

자료: 통계청(각년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지역별로 취업자의 연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이 56.9%로 가장 높고, 서울이 19.1%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전북이 21.1%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인천은 -13.4%p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8. 취업자의 지역별 연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

(단위: %, %p, 전년 대비)

		2010년	2011년	
				증감
전체		28.0	30.6	2.5
지역	서울	18.0	19.1	1.1
	부산	31.7	37.0	5.3
	대구	33.4	33.5	0.1
	인천	33.1	19.7	-13.4
	광주	16.4	24.9	8.5
	대전	26.4	47.4	21.0
	울산	58.0	56.9	-1.1
	경기	30.0	30.2	0.2
	강원	30.6	35.0	4.4
	충북	38.4	43.8	5.5
	충남	40.7	44.3	3.6
	전북	17.1	38.2	21.1
	전남	21.5	29.9	8.4
	경북	36.4	36.4	0.1
	경남	21.1	28.1	7.1
	제주	46.2	40.4	-5.7

자료: 통계청(각년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임금근로자〉

□ 2011년 임금근로자의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39.5%로 전년 대비 1.8%p 증가함.

- 인적 속성별로 교육훈련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41.6%), 연령별로는 30대(44.0%),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54.7%)이 다른 집단보다 높음.
- 교육훈련 참여자의 주된 교육훈련 방법으로는 ‘직장연수, 기관(단체) 주관 직업훈련’이 89.8%를 차지함.

표 9. 임금근로자의 인적 속성별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 및 주된 방법(1순위)

(단위: %, %p, 전년 대비)

		2010년	2011년						
		교육 참여 비중 (A)	비중 (B)	증감 (B-A)	교육 참여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기타
전체		37.7	39.5	1.8	89.8	5.7	2.6	1.8	0.1
성	남자	39.1	41.6	2.5	92.3	5.1	1.6	0.9	0.1
	여자	35.7	36.5	0.8	85.8	6.6	4.1	3.3	0.2
연령	15~29세	38.9	40.9	2.0	81.6	9.6	7.3	1.4	0.1
	30대	41.5	44.0	2.6	90.8	5.6	2.1	1.2	0.2
	40대	39.7	40.8	1.0	91.9	4.7	1.1	2.1	0.1
	50대	33.2	35.4	2.2	94.1	2.9	0.4	2.5	0.1
	60세 이상	19.1	20.9	1.8	93.5	1.7	0.5	4.1	0.2
학력	중졸 이하	18.3	19.7	1.4	90.6	3.1	3.3	2.7	0.2
	고졸	30.7	31.7	1.0	89.2	5.0	3.3	2.3	0.2
	전문대졸	42.0	44.2	2.2	90.3	5.0	2.5	2.0	0.2
	대졸 이상	52.7	54.7	2.0	89.8	6.7	2.1	1.3	0.1

주: 1) 주된 교육훈련 방법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수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해당 방법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년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지역별로 임금근로자의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이 66.3%로 가장 높고, 인천이 26.0%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대전이 22.2%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인천은 -15.4%p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10. 임금근로자의 지역별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 및 주된 방법(1순위)

(단위: %, %p, 전년 대비)

	2010년	2011년							
		교육 참여 비중 (A)	비중 (B)	증감 (B-A)	교육 참여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 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기타	
전체	37.7	39.5	1.8	89.8	5.7	2.6	1.8	0.1	
지역	서울	26.0	27.8	1.8	83.0	9.7	4.8	2.3	0.1
	부산	39.0	44.3	5.2	91.1	4.3	3.2	1.1	0.3
	대구	42.7	41.5	-1.2	91.1	4.1	2.9	1.5	0.4
	인천	41.5	26.0	-15.4	84.4	9.2	3.7	2.7	0.0
	광주	22.6	36.9	14.3	86.9	7.8	3.1	2.0	0.2
	대전	35.3	57.5	22.2	92.6	4.8	1.7	0.8	0.0
	울산	66.4	66.3	-0.1	96.1	1.8	0.7	1.4	0.0
	경기	39.3	38.6	-0.7	88.7	5.9	2.9	2.4	0.1
	강원	40.6	45.3	4.7	93.1	4.4	0.8	1.5	0.2
	충북	48.5	52.8	4.3	95.0	2.9	0.9	1.2	0.0
	충남	52.5	54.7	2.2	94.6	3.3	1.1	0.8	0.2
	전북	42.9	54.1	11.2	93.9	3.4	1.2	1.4	0.1
	전남	35.8	46.8	11.0	91.6	6.0	0.5	1.7	0.1
	경북	50.7	48.8	-2.0	94.3	3.1	0.9	1.7	0.0
	경남	31.0	37.4	6.3	91.1	4.9	1.9	1.8	0.3
	제주	58.4	47.9	-10.5	88.7	7.0	2.4	1.7	0.2

주: 1) 주된 교육훈련 방법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수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해당 방법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년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71.4%로 가장 높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1.2%), ‘금융 및 보험업’(66.8%)의 순임.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국제 및 외국기관’이 13.9%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2.0%p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11.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 및 주된 방법(1순위)

(단위: %, %p, 전년 대비)

	2010년	2011년							
	교육 참여 비중 (A)	비중 (B)	증감 (B-A)	교육 참여					기타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전체	37.7	39.5	1.8	89.8	5.7	2.6	1.8	0.1	
농업, 임업 및 어업	11.0	18.0	7.0	91.8	7.1	0.0	1.2	0.0	
광업	38.4	41.6	3.2	94.8	2.4	1.8	1.1	0.0	
제조	34.9	37.9	3.0	94.6	3.1	1.2	0.9	0.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8.9	71.4	2.5	92.9	5.7	0.5	0.9	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6.5	36.8	0.3	95.0	2.3	2.1	0.3	0.4	
건설업	20.2	22.2	1.9	90.7	4.9	2.8	1.3	0.2	
도매 및 소매업	26.3	27.4	1.1	85.8	6.9	4.3	2.8	0.2	
운수업	43.8	44.7	0.9	95.2	2.9	0.9	1.0	0.1	
숙박 및 음식점업	17.9	17.7	-0.2	68.4	14.8	12.9	3.8	0.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3.3	48.4	5.1	87.6	8.0	3.1	1.0	0.3	
금융 및 보험업	64.8	66.8	2.0	94.0	4.3	0.8	0.8	0.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8	23.5	0.7	88.9	5.0	3.7	2.4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2.7	44.9	2.2	87.9	6.7	4.3	1.1	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9.6	30.6	1.0	91.5	3.5	2.8	2.2	0.1	

〈표 계속〉

	2010년	2011년							
	교육 참여 비중 (A)	교육 참여							
		비중 (B)	증감 (B-A)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8.0	71.2	3.2	93.0	4.9	0.7	1.4	0.1	
교육 서비스	56.6	57.8	1.1	86.4	9.4	2.2	2.0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9.3	52.5	3.2	88.5	4.5	2.9	3.9	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1	33.9	3.8	76.5	11.1	9.7	2.8	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31.4	31.5	0.1	85.2	7.0	3.9	3.6	0.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5.0	3.0	-2.0	40.1	2.9	0.0	49.3	7.7	
국제 및 외국 기관	27.2	41.1	13.9	96.8	3.2	0.0	0.0	0.0	

주: 1) 주된 교육훈련 방법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수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해당 방법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년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53.6%로 가장 높고, 단순노무 종사자가 17.1%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7.5%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관리자는 -9.1%p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12. 임금근로자의 직업별 연간 교육훈련 참여 비중 및 주된 방법(1순위)

(단위: %, %p, 전년 대비)

	2010년	2011년							
	교육 참여 비중 (A)	교육 참여							
		비중 (B)	증감 (B-A)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전체	37.7	39.5	1.8	89.8	5.7	2.6	1.8	0.1	
관리자	59.4	50.3	-9.1	93.5	3.9	0.4	1.7	0.5	

(표 계속)

	2010년	2011년							
	교육 참여 비중 (A)	교육 참여							
		비중 (B)	증감 (B-A)	주된 교육훈련 방법(1순위)					기타
				직장 연수 등	자기주도학습	학원 수강	교양 강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1.1	53.6	2.4	87.8	7.6	2.6	1.9	0.1	
사무 종사자	47.0	47.7	0.6	89.6	6.1	2.6	1.5	0.1	
서비스 종사자	33.9	33.4	-0.5	83.0	6.7	6.6	3.7	0.0	
판매 종사자	33.3	34.6	1.3	88.5	5.8	3.4	2.0	0.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9.3	26.8	7.5	93.2	6.3	0.0	0.6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4.2	27.4	3.2	94.4	3.4	0.8	1.2	0.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7.6	41.0	3.5	96.6	2.1	0.6	0.6	0.1	
단순노무 종사자	15.5	17.1	1.5	89.5	3.0	3.5	3.7	0.3	

주: 1) 주된 교육훈련 방법은 1순위 응답만을 집계한 것임.

2) 주된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수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해당 방법을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년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2011년 임금근로자의 연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은 35.9%로 전년 대비 2.5%p 증가함.

- 인적 속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38.5%), 연령별로는 30대(40.8%),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50.0%)이 다른 집단보다 높음.

표 13. 임금근로자의 인적 속성별 연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

(단위: %, %p, 전년 대비)

		2010년	2011년	
				증감
전체		33.4	35.9	2.5
성	남자	34.9	38.5	3.6
	여자	31.3	32.4	1.1
연령	15~29세	32.7	34.7	2.0

〈표 계속〉

		2010년	2011년	
			증감	
전체		33.4	35.9	2.5
연령	30대	37.0	40.8	3.8
	40대	36.0	37.7	1.8
	50대	30.2	33.0	2.8
	60세 이상	17.2	19.4	2.2
학력	중졸 이하	16.4	17.7	1.2
	고졸	27.3	28.5	1.2
	전문대졸	37.5	41.0	3.5
	대졸 이상	46.5	50.0	3.5

자료: 통계청(각년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지역별로 임금근로자의 연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이 64.6%로 가장 높고, 인천이 23.0%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전북이 30.4%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인천은 -15.1%p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14. 임금근로자의 지역별 연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

(단위: %, %p, 전년 대비)

		2010년	2011년	
			증감	
전체		33.4	35.9	2.5
지역	서울	21.6	23.1	1.5
	부산	36.6	41.8	5.1
	대구	39.7	38.5	-1.1
	인천	38.1	23.0	-15.1
	광주	20.2	31.0	10.7
	대전	31.8	53.2	21.4
	울산	64.8	64.6	-0.2

〈표 계속〉

		2010년	2011년	
			증감	
지역	경기	34.8	35.2	0.3
	강원	38.0	43.1	5.1
	충북	45.0	50.5	5.5
	충남	50.5	52.4	1.9
	전북	20.7	51.1	30.4
	전남	31.4	42.5	11.1
	경북	46.5	45.1	-1.4
	경남	27.3	34.5	7.1
	제주	56.0	45.1	-10.9

자료: 통계청(각년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산업별로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6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65.5%), ‘금융 및 보험업’(62.0%) 순임.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국제 및 외국 기관’이 13.1%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2.9%p로 가장 많이 감소함.

표 15. 임금근로자자의 산업별 연간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

(단위: %, %p, 전년 대비)

	2010년	2011년	
		증감	
전체	33.4	35.9	2.5
농업, 임업 및 어업	9.4	16.0	6.5
광업	35.4	38.8	3.4
제조업	31.7	35.7	3.9

〈표 계속〉

	2010년	2011년	
		증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2.5	65.5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2.2	34.5	2.3
건설업	18.0	20.5	2.5
도매 및 소매업	22.3	24.0	1.7
운수업	39.9	42.5	2.6
숙박 및 음식점업	13.7	12.8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7.0	43.6	6.5
금융 및 보험업	58.3	62.0	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6	21.6	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9	40.3	2.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8	28.1	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1.3	66.0	4.7
교육 서비스	49.6	51.5	1.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4.5	48.4	3.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7	27.5	3.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27.8	28.4	0.7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4.3	1.4	-2.9
국제 및 외국 기관	26.6	39.8	13.1

자료: 통계청(각년도 4사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48.7%로 가장 높고, 단순노무 종사자가 15.1%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7.7%p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관리자는 -6.7%p로 가장 많이 감소함.

◆ 고용노동부, 2011년 회계 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 2011 회계 연도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는 2만 7천 원으로 전년 2만 5천 원보다 11.0% 증가(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대상)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32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
 - 이 중 직접노동비용은 33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 간접노동비용은 99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

표 17.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단위: 천 원,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노동비용총액	4,021,5 (100.0)	4,328,5 (100.0)	7.6
직접노동비용	3,165,5 (78.7)	3,331,6 (77.0)	5.2
간접노동비용	856,0 (21.3)	996,8 (23.0)	16.4
퇴직급여	383,3 (9.5)	480,3 (11.1)	25.3
법정복리비	266,7 (6.6)	280,1 (6.5)	5.0
법정외복리비	169,3 (4.2)	195,5 (4.5)	15.5
교육훈련비	24,5 (0.6)	27,2 (0.6)	11.0
기 타	12,2 (0.3)	13,6 (0.3)	11.5

주: 1) ()는 구성비임.

2) 기타는 현물지급비용, 채용관련비용, 사보제작, 표창,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의 비용임.

자료: 고용노동부(2012.8.), "2011 회계 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

□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교육훈련비는 300인 이상 기업의 14.4% 수준임.

-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교육훈련비는 7,600원이며, 300인 이상 기업은 5만 3천 원임.
- 교육훈련비는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데, 10~29인 기업은 3,800원인데 비해 1,000인 이상 기업은 6만 7천 원임.

표 18. 기업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교육훈련비

(단위: 천 원, %)

구분	노동비용 총액		교육훈련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전 규모	4,021.5	4,328.5	24.5	27.2
300인 미만 (A)	3,121.5	3,380.6	7.8	7.6
10~29인	2,860.3	3,090.2	4.6	3.8
30~99인	3,133.2	3,401.6	7.4	7.2
100~299인	3,342.9	3,636.2	11.1	11.8
300인 이상 (B)	5,168.7	5,563.1	45.8	52.7
300~499인	3,880.3	4,264.4	19.9	21.8
500~999인	4,264.9	4,318.4	19.4	23.9
1,000인 이상	5,713.2	6,177.1	59.0	67.0
A/B*100	60.4	60.8	17.0	14.4

자료: 고용노동부(2012.8.), 2011 회계년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개요〉

- 조사 목적: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노동비용의 실태를 파악하여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 대상: 농림어업,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국·공립 교육기관, 보건·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3,318개 표본기업체)
- 조사 기준: 2011 회계 연도
- 조사 기간: 2012. 5. 14.~6. 13.
- 용어 설명
 - 노동비용: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제 부담하는 금액으로, 직접노동비용과 간접노동비용으로 구성
 - 직접노동비용: 정액·초과급여, 상여금 등 현금급여
 - 간접노동비용: 퇴직급여,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 고용보험 동향

□ 2012년 7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155만 6천 개소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함.

○ 피보험자는 1,09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함.

표 19.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

(단위: 개소, 명, 건, %)

	2011.7.	2012.6.		2012.7.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사업장	1,445,283	1,558,381	1,555,833	110,550	7.6	-2,548	-0.2
○피보험자(순수)	10,482,843	10,958,902	10,970,725	487,882	4.7	11,823	0.1
남 자	6,477,837	6,680,081	6,691,671	213,834	3.3	11,590	0.2
여 자	4,005,006	4,278,821	4,279,054	274,048	6.8	233	0.0
취득자	501,104	456,765	536,785	35,681	7.1	80,020	17.5
상실자	509,441	427,679	527,700	18,259	3.6	100,021	23.4

주: 피보험자 통계는 상시근로자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2년 7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 직업능력개발사업 건수는 4만 1천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함.

○ 세부 사업별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22.8%), 유급휴가훈련(55.4%), 수강지원금(7.6%)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는 53.2% 감소함.

표 20. 직업능력개발사업 건수 현황

(단위: 건, %)

	2011.7.	2012.6.	2012.7.		2012.7월 누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체	37,211	37,333	40,585	9.1	8.7	240,447
직업능력개발훈련	19,030	19,935	23,373	22.8	17.2	121,897
유급휴가훈련	314	345	488	55.4	41.4	2,351
수강지원금	13,762	15,059	14,802	7.6	-1.7	99,765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	4,105	1,994	1,922	-53.2	-3.6	16,434

주:1)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의 지원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일반회계 등을 포함하는 타 기관의 통계수치와 다를 수 있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2년 7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 직업능력개발사업 금액은 415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9% 증가함.

- 세부 사업별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52.8%)과 수강지원금(11.3%)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유급휴가훈련(-19.8%)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49.1%)는 감소함.

표 21. 직업능력개발사업 금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2011.7.	2012.6.	2012.7.		2012.7월 누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체	30,335	36,329	41,525	36.9	14.3	201,356
직업능력개발훈련	23,860	30,941	36,454	52.8	17.8	166,357
유급휴가훈련	1,126	829	903	-19.8	8.9	5,702
수강지원금	2,393	2,921	2,663	11.3	-8.8	18,167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	2,957	1,638	1,504	-49.1	-8.2	11,129

주:1)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의 지원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일반회계 등을 포함하는 타 기관의 통계수치와 다를 수 있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2년 7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작성: 정재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